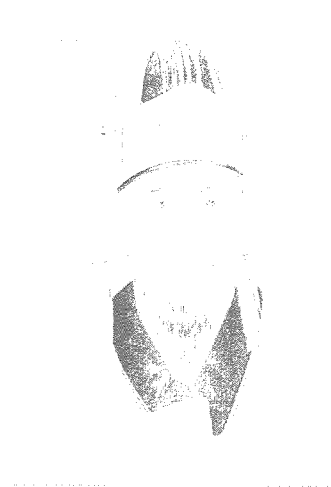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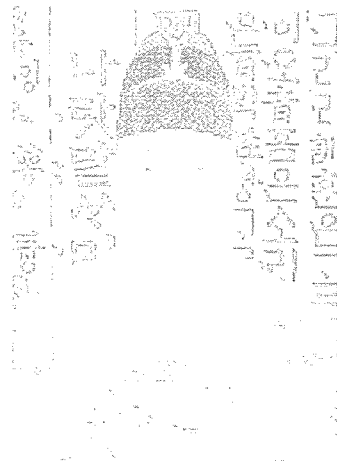




# 권 · 은 · 길 · 한 · 평 · 생



## 원효대사, 대중과 함께 하며 책을 쓰다.

우리나라 불교를 이야기하매 원효를 빼놓을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라 진평왕 39년인 617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고 하며, 스무 살 되던 해 집을 절로 삼고 거기서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다.



이후 여러 곳을 떠돌며 불법을 배우다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다. 희대의 '해골물 사건'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타기위해 항구로 가던 중 토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찾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맛있게 먹고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보니 자신이 맛있게 마셨던 물은 다름 아닌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 아닌가.

이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애당초 차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고통과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를 깨닫고 나니 새삼스레 당에 들어가 법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해서 그는 발길을 돌려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교화에 몰두하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책들을 쓰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사실 그의 일생은 범부로서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요석공주와 관계하여 설총을 얻은 것도 그렇고, 설

총을 낳은 후 속인의 옷으로 바뀌어 입고 다닌 것도 그렇고, 술집을 무애자재 출입한 것도 그렇다.

그러나 한편 그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널리 대중들 앞에서 설법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가 스님으로서 스스로 '파계'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어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가 일생을 두고 염두에 둔 것도 모든 경전과 교리의 사상을 두루 조화시켜 통일함으로써 부처의 참 정신을 대중 속에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그가 평생에 남긴 저술은 수레에 가득가득 실어도 몇 수레가 넘는 분량(100여 종 240여 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평생 그 글을 쓰는데 만 매달려도 다 못쓸 분량이라고 한다.

## 세종대왕, 신념으로 이룩한 '빛나는 시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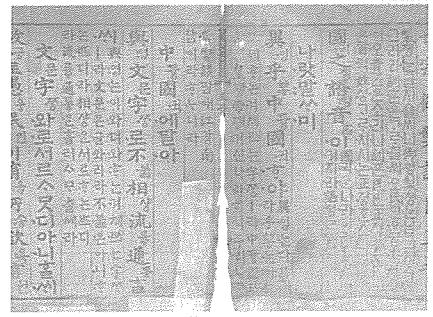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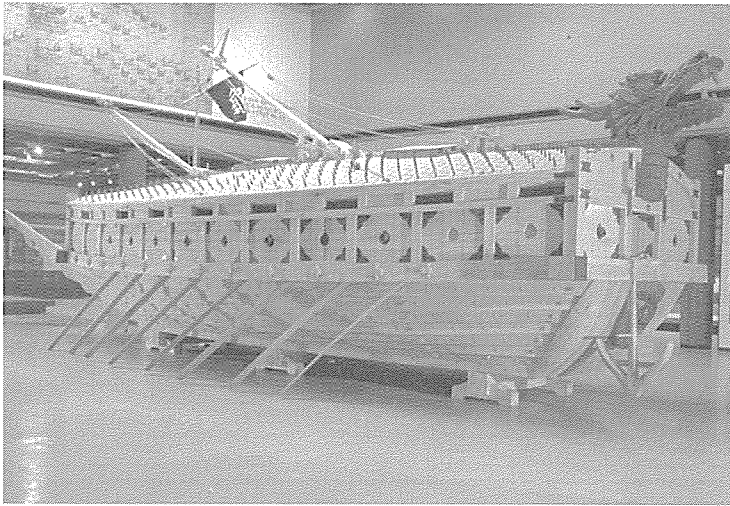
또 이시기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대로 평가받는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기틀

을 잡은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또한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제가 배출되었으며,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와 제도가 정비되었음은 물론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문화사에 있



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 밖에도 농업과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전,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하여 세종대왕은 민족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이렇게 세종이 소신 있는 정치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권의 안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 강화된 왕권을 세종은 배성을 위해 썼다.

‘집현전’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자를 창제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모름지기 성군은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는 법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는 왕만이 백성들의 하늘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사실 세종시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훌륭한 학자와 신하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역할을 제대로 쓸 수 있었던 세종의 추진력과 인물됨이 그 밑바탕이 된 것이다.

더더욱 의지를 관철하는 고집과 신념이 있었으니 ‘빛나는 시대’가 결코 우연은 아닌 셈이다.

###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다

충구공은 어려서부터 무인의 담력과 문인의 학식을

겸비했으며, 32세 (1576년) 때 비로소 무과에 급제 하였다.

다 알다시피 충무공은 전라 좌수사로 부임 하면서 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왜적이 쳐들어 올 것에 대비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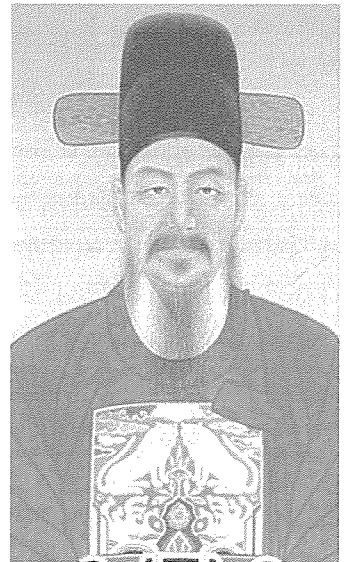
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 거북선이었는데, 그 진면목은 임진왜란 때 나타났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왜적 함대와 맞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개가를 올렸던 것이다.

이는 사실 정치적인 박해와조정외의 모함을 극복하고 거둔 승리여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왜란이 끝나가던 1598년 11월 19일 충구공은 노량 해전에서 왜구의 초탄을 맞고 결국 쓰러지고 만다.

이순간 충무공은 “싸움이 급하니 적들에게 내 죽음



을 알리지 말라”며 죽는 순간까지도 조국을 먼저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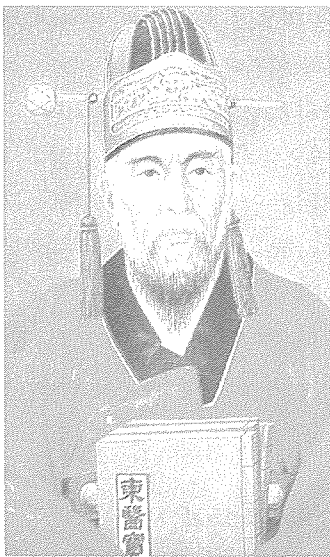
그 조국애가 바로 풍전등화와도 같은 나라를 구하는 힘이 된 것이다. 충무공의 벗이었던 서애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순신의 사람됨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아담하여 마치 수양하며 근신하는 선비와 같다. 가슴속에는 대담한 기운이 있어 일신을 잇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본래부터 수양이 깊은 까닭이다”

그가 400여 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한결같은 추앙을 받는 까닭은 바로 ‘수신제가’와 ‘평천하’에 모두 성공했기 때문이다.

주변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에 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아주 작은 마음가짐에서 온 것이다.

### 허준,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의학을 배웠다고 전해온다.

TV드라마로 여러 번이나 극화 될 만큼 허준의 생애에는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이다.

역사 이래 최고의 명사로 손꼽히는 허준은 1546년 지금의 서울 땅인 양천구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다른 견해도 있긴 하나 당대 최고의 명인이었던 유의태에게서

선조7년인 1575년 내의원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그는 서자 출신 입에도 여러 차례승진을 거듭하여 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선조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왕을 보필하여 의주까지 내려받는다.

그러나 여러 대소 신료들의 반대로 품계가 취소되었으며, 1608년 선조가 죽게 되자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고 만다.

유배 이전(1596년)부터 그는 모든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나라에서 나는 약초들을 용법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한 ‘동의보감’ 편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는 왜란 이후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위대한 의서 편찬 작업은 그가 광해군 원년에 다시 복직한 의서 편찬 작업은 그가 광해군 원년에 다시 복직한 뒤 1년 만인 1610년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다.

15년여에 걸친 대역사 끝에 전 25권 25책의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이다.

한때 정유재란으로 의서 편찬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한동안의 귀양살이로 그동안의 의서 편찬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도 처했지만, 끝내 그는 ‘동의보감’ 편찬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허준은 우리나라 의학을 하나의 독립된 의학으로 여겨 ‘동의’라 불렀으며, 이로써 우리의 의학은 중국의 의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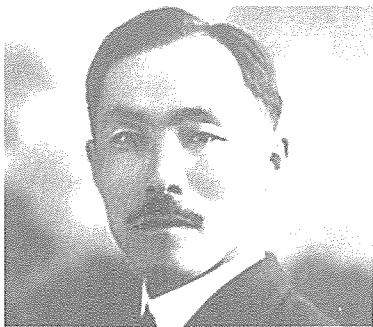
그의 ‘동의보감’은 이후 이웃나라인 일본과 청나라에서도 간행되어 ‘동양의학의 성전’으로 평가받았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죽은 후에 정1품인 보국숭록대부에 수록되었다.

그가 단지 서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분 상승만을 노렸다면 이 같은 위대한 업적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 도산 안창호, 구국 독립운동의 큰 스승



도산 안창호 성생은 우리나라 근대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였으며, 구국 독립운동에 앞장선 애국지사였다.

1878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난 그는 청일전쟁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 1895년 열여섯 어린나이에 상경해 구세학당에 들어가게 된다.

1897년에는 독립협회에 가입해 평양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열여덟살의 나이로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여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 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이상재, 이승만 등과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1900년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문명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1906년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그는 서

둘러 귀국하여 이갑수, 신채호, 등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인해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다시 '홍사단'을 조직, 외국 투쟁에 앞장섰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기자 그는 임정에 참여하여 민족 계몽을 통한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 하였으나,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출옥하자마자 그는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또 한번 체포되어 1938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독립운동을 벌이는 동안 언제나 무실역행을 근간으로 삼았으며, 언제나 '교육'이라는 민족운동을 통해서만이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죽을 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 '민족' 독립을 부르짖었던 것이며, 그것을 위해 늘 몸소 행동했던 것이다.

### 백범 김구, 죽을 고비 속 나라 사랑

백범은 지고지순한 애국심으로 한세상을 살다 간 분



이다.

민족의식이 정립된 청년기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전 생애를 일제의 침략하에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데 바쳤다.

일제의 잔악한 고문으로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그

는 강철같은 의지로 '나라 사랑'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그는 신민회 사건으로 일제에게 17년간이나 옥살이를 하는 동안 숱한 고문과 모진 억압을 받았는데, 몇 차례 죽을 고비 속에서도 그는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러기에 밤을 새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고"라며 나라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반성했다고 한다.

'백범일기'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성품을 보건대, 그는 어린시절부터 담대하고 용감했다고 한다.

이런 성품이 있었기에 열아홉이란 어린나이에 '동학'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으며, 의병부대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으며,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광복군 창군과 같은 커다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성실'과 '열성'을 다해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대담함 만큼이나 포용성 또한 뛰어나 임시정부 시절 민주적인 국무 위원제를 추진하였으며, 좌파 독립운동 단체들과 인물들을 포용하는 한편 일제가 패망한 뒤에는 좌우를 모두 아우르는 통일 정부의 수립을 준비하였다.

백범이 광복 이후 남북 협상을 추진하여 완전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백범은 처음부터 통일 조국을 건설하지 않고 남북에 각각 두개의 정부를 수립하면, 남북 분단이 고착되고 동족상잔의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염려했었다. 그의 염려는 맞았으며, 광복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백범이 원하던 남북협상에 다시 나서고 있는 것이다.